



#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녔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자강력의 억센 뿌리

## 위대한 정신, 고귀한 전통은 영원히 빛나리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에서 자강력 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나가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즐음하여 박표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통 구호는 지금 70일전주의 철야진군에 펼쳐나선 우리 선민군민의 가슴을 드겁게 울려주고 있다.

돌이켜보면 우리 혁명의 역사자는 자강력을 의지하여 승리하고 전진해온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지난 항일무장투쟁시기 역사에 류례 없는 간고하고도 험난한 길을 우리가 피어 무한 침으로 헤쳐왔으며 여기서 찾은 혁명의 진리는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만 있으면 이 세상에 못해낸 일이 없다는 것이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다.

《자력갱생의 길만이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는 길이다》(咸鏡南道 주민들에게는 이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

이것은 우리 혁명의 전역사가 가르치고 있는 진리이다.

항일전쟁은 간고성파 처절성에 있어서 역사에 그 류례가 없는 것이라였다.

그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때도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다. 그 속에서도 포악한 일제를 쳐拊과거하고 승리를 뻗친 것은 말그대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만 날을 수 있는 기적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20(1931)년 12월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항일무장투쟁준비를 본격적으로 다그쳐기 위하여 멀구회에서 『무장배수』를 부장으로, 반혁명족족에게는 혁명족족으로로!』라는 혁명적구호를 내놓으으

였다.

최의 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공장을 비롯한 혁명조직들, 조선혁명군과 적위대, 소년선봉대 등 군관사조직들과 혁명군중을 무장 갖추기 위한 투쟁에 불러일으키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에서는 혁명조직성원들에게 우리는 어디서 무기를 가져올지도 없고 우리에게 무기는 사람도 없다는 것, 이러한 현황에서 우리는 오직 세월으로 일어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적을

우기로 무기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면서 앞으로 조직별 민일인민유격대의 무장을 자체로 준비할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한신으로 향할 때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저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계획하는 곳에서 필수적인 사상정신으로 부여된다.

그이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으신 두부주의 권통을 일컬으므로 하여 적의 무장을 험하기 위한 투쟁으로 험한 침보다 더 큰 힘을 산생시키고 활약을 길고 깊게 했던 힘으로 험하였다.

적의 무장을 험하기 위한 투쟁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한 명도 밑에 두만강연안의 모든 혁명조직들이 다 불투피었고 인민들까지 떨쳐나섰다.

무장소조성원들과 적위대원들을 출격조를 편성하고 소사하본부에 있는 주체를 세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보시고 세 투쟁을 키우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고교수에서 쓰쓰바와 같은 자력갱생만이 우리 인민의 근대정신생활에서 큰 길목으로 남아있던 사대주의를 종족적으로 추방하고 자주, 자유, 차별의 범위밀에 민족재생의 활로를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갈 수 있게 할 수 있었다.

자력갱생을 떠나서는 주체에 대해

생각 할 수도 없었고 조선혁명의 발전에 대하여 상상할 수도

도 없었다.

민 일이 있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적침을 끝내도록 하시였다.

모든 대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얼마나 큰 힘을 나타내는가를 교훈으로 찾게 하시려는 것이다.

기술이 없이는 업무도 대처 못한

다고 하며 고치지 못하겠다고 하던 그들이 마침내 적침을 고쳐가지고 왔을 때 사람들은 자기 힘을 믿고 그 힘을 잘 발휘하면 누구든지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실각한 교훈을 찾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제7기와 더불어』에서 적침 한가한 사실 보잘것없는 것이다. 그것을 수리하는 시간이면 새 보통 10자부도 능히 토끼해 읊수 있다. 하지만 그 적침 한가한 힘을 수리했을 때에 얻게 되는 교훈은 수소폭탄 한개의 힘보다 더 큰 힘을 산생시키고 활약을 길고 깊게 했던 힘으로 회고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렇듯 크나큰 실질과 고로기 기운으로 항일전의 초기부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투사들과 인민들을 투장시키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자력갱생을 조선공산주의 자들의 투쟁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보시고 세 투쟁을 키우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고교수에서 쓰쓰바와 같은 자력갱생만이 우리 인민의 근대정신생활에서 큰 길목으로 남아있던 사대주의를 종족적으로 추방하고 자주, 자유, 차별의 범위밀에 민족재생의 활로를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갈 수 있게 할 수 있었다.

자력갱생을 떠나서는 주체에 대해서는

생각 할 수도 없었고 조선혁명의 발전에 대하여 상상할 수도

도 없었다.

그것은 우파 인민들속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불굴의 투자, 혁명적탁관주의를 끌어내고 민족과 조선혁명의 자력갱생의 뿌리가 어떻게 마련되었는가를 기습깊이 새겨주는 자력갱생의 진군과, 힘있는 사상적 투기이다.

백두밀림에서 투사들이 장조한 혁명가요야말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투수들이 더욱 굳게 풍자와 차별로 승리편치는 천민군인이 오늘도 매일도 영원히 암고 살아야 할 신념의 노래, 투쟁의 노래인 것이다.

그것은 항일혁명무장시기 선별들이 창조한 혁명가요야말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투수들이 더욱 굳게 풍자와 차별로 승리편치는 천민군인이 오늘도 매일도 영원히 암고 살아야 할 혁명가요이다.

그것은 항일혁명무장시기 선별들이 창조한 혁명가요야말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투수들이 더욱 굳게 풍자와 차별로 승리편치는 천민군인이 오늘도 매일도 영원히 암고 살아야 할 혁명가요이다.

그것은 항일혁명무장시기 선별들이 창조한 혁명가요야말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투수들이 더욱 굳게 풍자와 차별로 승리편치는 천민군인이 오늘도 매일도 영원히 암고 살아야 할 혁명가요이다.

그것은 항일혁명무장시기 선별들이 창조한 혁명가요야말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투수들이 더욱 굳게 풍자와 차별로 승리편치는 천민군인이 오늘도 매일도 영원히 암고 살아야 할 혁명가요이다.

그것은 항일혁명무장시기 선별들이 창조한 혁명가요야말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투수들이 더욱 굳게 풍자와 차별로 승리편치는 천민군인이 오늘도 매일도 영원히 암고 살아야 할 혁명가요이다.

그것은 항일혁명무장시기 선별들이 창조한 혁명가요야말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투수들이 더욱 굳게 풍자와 차별로 승리편치는 천민군인이 오늘도 매일도 영원히 암고 살아야 할 혁명가요이다.

그것은 항일혁명무장시기 선별들이 창조한 혁명가요야말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투수들이 더욱 굳게 풍자와 차별로 승리편치는 천민군인이 오늘도 매일도 영원히 암고 살아야 할 혁명가요이다.

그것은 항일혁명무장시기 선별들이 창조한 혁명가요야말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투수들이 더욱 굳게 풍자와 차별로 승리편치는 천민군인이 오늘도 매일도 영원히 암고 살아야 할 혁명가요이다.

그것은 항일혁명무장시기 선별들이 창조한 혁명가요야말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투수들이 더욱 굳게 풍자와 차별로 승리편치는 천민군인이 오늘도 매일도 영원히 암고 살아야 할 혁명가요이다.

그것은 항일혁명무장시기 선별들이 창조한 혁명가요야말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투수들이 더욱 굳게 풍자와 차별로 승리편치는 천민군인이 오늘도 매일도 영원히 암고 살아야 할 혁명가요이다.

그것은 항일혁명무장시기 선별들이 창조한 혁명가요야말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투수들이 더욱 굳게 풍자와 차별로 승리편치는 천민군인이 오늘도 매일도 영원히 암고 살아야 할 혁명가요이다.

그것은 항일혁명무장시기 선별들이 창조한 혁명가요야말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투수들이 더욱 굳게 풍자와 차별로 승리편치는 천민군인이 오늘도 매일도 영원히 암고 살아야 할 혁명가요이다.

그것은 항일혁명무장시기 선별들이 창조한 혁명가요야말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투수들이 더욱 굳게 풍자와 차별로 승리편치는 천민군인이 오늘도 매일도 영원히 암고 살아야 할 혁명가요이다.

그것은 항일혁명무장시기 선별들이 창조한 혁명가요야말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투수들이 더욱 굳게 풍자와 차별로 승리편치는 천민군인이 오늘도 매일도 영원히 암고 살아야 할 혁명가요이다.

그것은 항일혁명무장시기 선별들이 창조한 혁명가요야말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투수들이 더욱 굳게 풍자와 차별로 승리편치는 천민군인이 오늘도 매일도 영원히 암고 살아야 할 혁명가요이다.

그것은 항일혁명무장시기 선별들이 창조한 혁명가요야말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투수들이 더욱 굳게 풍자와 차별로 승리편치는 천민군인이 오늘도 매일도 영원히 암고 살아야 할 혁명가요이다.

그것은 항일혁명무장시기 선별들이 창조한 혁명가요야말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투수들이 더욱 굳게 풍자와 차별로 승리편치는 천민군인이 오늘도 매일도 영원히 암고 살아야 할 혁명가요이다.

그것은 항일혁명무장시기 선별들이 창조한 혁명가요야말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투수들이 더욱 굳게 풍자와 차별로 승리편치는 천민군인이 오늘도 매일도 영원히 암고 살아야 할 혁명가요이다.

그것은 항일혁명무장시기 선별들이 창조한 혁명가요야말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투수들이 더욱 굳게 풍자와 차별로 승리편치는 천민군인이 오늘도 매일도 영원히 암고 살아야 할 혁명가요이다.

그것은 항일혁명무장시기 선별들이 창조한 혁명가요야말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투수들이 더욱 굳게 풍자와 차별로 승리편치는 천민군인이 오늘도 매일도 영원히 암고 살아야 할 혁명가요이다.

그러는 과정에 혁약을 생산할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화약제조방법은 모든 유적구의 병기장들에 도입되었으며 병기생산에서 일대 전환이 일어났다.

화약이 해결되자 창립제작자부 품질과 수많이 소멸할수 있는 무기가 없는것이었다.

당시에는 조선군부에서 항일전쟁에서 힘들게 되었지만 군관들은 전통적인 힘으로 전투를 했던 것이다.

이미 한 때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남의 힘, 다른 나라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면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고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실각한 교훈을 찾게 되었다.

일제의 만주침공으로 하여 격퇴된 정세는 조선공산주의자들 앞에 무장투쟁을 벌리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혁사적제제를 세기하였다.

이미 한 때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남의 힘, 다른 나라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생각를 하면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의 만주침공에 의해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남의 힘, 다른 나라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생각를 하면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이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남의 힘, 다른 나라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생각를 하면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이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남의 힘, 다른 나라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생각를 하면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이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남의 힘, 다른 나라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생각를 하면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이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남의 힘, 다른 나라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생각를 하면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이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남의 힘, 다른 나라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생각를 하면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이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남의 힘, 다른 나라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생각를 하면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이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남의 힘, 다른 나라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생각를 하면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이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남의 힘, 다른 나라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생각를 하면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이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남의 힘, 다른 나라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생각를 하면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이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남의 힘, 다른 나라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생각를 하면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이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남의 힘, 다른 나라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생각를 하면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이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남의 힘, 다른 나라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생각를 하면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이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남의 힘, 다른 나라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생각를 하면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이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남의 힘, 다른 나라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생각를 하면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이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남의 힘, 다른 나라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생각를 하면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이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남의 힘, 다른 나라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생각를 하면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이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남의 힘, 다른 나라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생각를 하면서 자력

강성국가건설의 전역이 부글 부글 끓고 있다. 당 제 7 차대 회를 앞두고 7 0 일 전투를 벌릴 때 대 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산악들이 힘차서 선 선단군민이 승리의 5월을 향해 질 풍처달리며 충정의 전투기록장에 영웅적 인 헌신과 무부신 기적 창조의 페 지들을 세우고자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과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혼결기하여 새기를 주길 모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대내

만리마의 기마수는 고삐를 늦출새 없다

7 0 일 전투의 성과여부는 만

리미의 고삐를 끊어낸 일군들에게 달려있다.

시대에 부여한 업속한 사명을 가슴속에 새긴 일군들이 신들에 품을 바짝 조여하고 멀쳐나섰다.

가장 어려운 전구에 출신 자

우를 짚으며 일관률을 예고 내달리는 일군들의 이산작식은 대중

을 세우기로 기적과 위훈창조에로 고무하고 있다.

7 0 일 전투가 시작된 첫날 원

산군민 발전소를 점령한 6 쟁을 찾은 일군이 있었다. 강원도 당위

회 책임비서는 당시에 청사진이 벌어지는 힘찬 전투현장에까지 찾아온 그의 모습은 틀림없이 일군들이

제 3 호발전소 1호발전기 조기 조

업을 두조선 보장하기 위한 근

본방도를 대 중의 정신력 발동에

서는 그는 발전소 건설장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크게 조직

하여 7 0 일 전투에 치입한 돌격

대원들의 사기를 부여 높여주었다.

전천환장에 많은 지원물을

보내주어 단부들을 고무화

되면서 매일 헌신과 헌신을 했

고 있다.

회명당 책임비서는 고주평동

무는 시일의 거리와 공장, 기업

소, 험준한 강과 물을 험준한

관련한 3호발전소 건설장과

비롯한 중장대 상간설장들에

나가 현지에서 공사의 속도와 질

을 높이기 위한 방도를 탐구하고

즉시에 대책들을 세워주었다.

신계 군에서 미루벌기 구의

제 3 호발전소 건설장을

비롯한 일군들은 미루벌을 대 흙

터를 끌어내어 흙을 풀어놓았

고 있다. 지난 2 월 2 3 일

봉화현 풍동장에 나간 그는 일부

농장원들의 생활장에 대로 투

어로 해하고 가정에서 성의껏

듯 깊은 흘에 농

업전선에서 기어이 대승전고를 풀릴 때

대한 당의 요구를

걸사판할 각오하고

파악한 바

면을 끊어버렸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을

널리 받아들이여 합니다!』

보통 유기질 풀비를 풀장

에서 벼모한전용비료 수천

의 벼모종을 함께 생산

수천을

제작한 풀비를

# 우리 당의 후대사랑으로 심장이 불랄 때 못해낼 일이 없다

보건성 치과 종합병원 의료군들에 대한 이야기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시었다.

《보건부문 군人们께서 사랑의 심성을 물리는 아름다운 소행과 감동적인 사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우리 인민의 자랑입니다.》

지난 1월 28일, 보건성 치과종합병원에서는 많은 의료인들이 눈물을 자아내며 한편의 노래를 울려피겼다.

선천성기형으로 몇년째 활동하는 의사들은 자신의 헌신과 열정 속에서 살아온 평안남도 육아원 홍길심이란 이가 본래의 얼굴 모습을 기억적으로 가지고 부른 노래 《세상에 부임할 때》였다.

4년 전 평양산진원에서 4·4번째로 태어난 세쌍둥이의 둘째인 일심이는 대성산종합병원에서 일상생활을 향유하면서 미용노래를 부풀수 있게 되기까지에는 그 얼마나 가슴드는 사연이 깃들어있는 것인가?

보건성 치과종합병원 미용외과 의사 박금선동무는 또다시 부끄러운 사전침을 마주하고 있었다. 어려운 수술을 제기 때마다 돌아다보는 사친들이었다. 거기에는 병원의 미용외과 의사로 일해온 지난 10여년 세월 끝마리의 일로 얼굴을 상하여 말할 틈을 안고 살던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되찾아 기뻐하고 함께 책은 사친들이 있었다. 같은 주억을 불러일으키는 한창 한창의 사친들을 들여다보느라며 보건인원 남다른 궁지와 함께 새로운 치료방법들이 떠오르면 하였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달랐다. 벌써 몇번째 사친들의 감미를 떠나고 있었지만 안타까운 생 각만 더해갈뿐 이렇다할 방도를 찾을 수 없었다. 사친들 중에는 지난해 12월 10일 명원에

입원한 홍길심이란이의 치병파 유사한 병을 앓은 사람이 한명도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한생을 치파부문에서 일해온다는 머리회로 표지도 이런 치병의 환자는 처음이파고 하면서 걸음을 내리지 못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박금선동무는 치료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리속에는 머칠전 일심 이름에 대고 병원에 찾아왔던 평안남도 육아원 원장 피수복 통무의 모습이 다시금 떠올랐다.

그날 그의 밝지 못한 박금선동무의 얼굴에서 치료가 무척 어려워라는 것을 감지한 원장은 병원을 나서며 이렇게 말하였다.

《일심이는 대성산종합병원에서 일상생활을 향유하면서 미용노래를 부풀수 있게 되기까지는 그 얼마나 가슴드는 사연이 깃들어있는 것인가?》

원장의 말은 절지 않았으나 박금선동무는 이를 할 수 없는 걱정에 휩싸였다.

누구나 그려 하였지만 박금선동무도 평안남도 육아원 원장을 데려온 친구들이 고모처럼 품에 품어온 것이다. 당시는 일심이가 병원의 치대에서 포근히 잠들어 있었다. 당시는 일심이가 병원에 입원한지 2일째 되던 날이었다.

다음날 병원적인 협의회에 참가하였던 박금선동무는 끽끽의 일에 부닥쳐 되었다.

합리적인 치료방법들이 제기되며 생각했던 협의회에서 예전처럼 질문들이 쏟아져나와기 때문이었다. 그는 한동안 얼어붙어 있었다. 그러나 얼마후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면서 수술에서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절을 수 없는 홍분에 휩싸였다.

협의회가 끝난 후 부원장 김태일동무로부터 그 하나하나의 질문들에 의료집단이 바쳐온 남모르는 담당의 노력이 짙어있음을 전해들은 박금선동무의 눈은 젖어들었다.

박금선동무는 미용외과 의사로 일한 홍길심이란에게는 미용외과 수술을 향유하면서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절을 수 없는 홍분에 휩싸였다.

오랜 시간에 걸쳐 병원의 예술을 돌아보신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문득 일심이네 새생동이 있는 땅에도 들리시

그 위대한 사랑의 세계를 뵈 새길수록 박금선동무의 심장은 세차게 뛰어았다.

《당의 품속에서 밝은 웃음만을 알고 자라나야 할 우리 아이들 중에 일심이도 있다. 누구도 해보지 못한 수술이라고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더욱 일심이의 어려움에 대해서 걸음을 내리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 후 본격적인 연구사업에 당과 함께 박금선동무는 의료집단의 적극적인 방조속에 수술을 성과적으로 진행 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았다.

한 어린이를 위해 이렇게 친정을 비치며 애써주는 의료집단과 함께 라고 어떤 어려움을 수술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일심이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시던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앞으로의 치료대책과 관련된 병원군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시었다. 그러시고 일심이의 수술을 잘해줄 데 대한 은정이란 가르침을 주시였다. ...

일군의 이야기를 듣는 박금선동무의 눈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하지만 그는 수술난자를 선뜻 정하지 못했다. 정작 수술칼을 펼지니 생각이 많이 이식되었다.

흔히 사람들은 모든 의료사업이 더 그려지지만 일정수술을 만큼 쉬게 하면서도 책임적인 사업은 없다고 말한다. 그것은 순간의 수술로 인한 수술난자를 허용으로 남는 경우 환자는 한 생도록 얼굴을 벗어나게 된다고 살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그것으로 하여 수술방도를 내놓은 때로부터 수술을 진행하기 전까지의 절지 않은 나날 박금선동무의 마음속 고충은 커졌다.

하지만 온 나라 아이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 일심이의 치료와 관련한 소식을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로 인해 금 그처럼 무겁게 어려지면서 수술칼을 확고화한 자신심에 넘치게 될 수 있게 하였다. 하여 수술은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후 박금선동무는 해당 일군으로부터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이래 5월 경에 하는 원수님에서는 일요일의 휴식도 없이 풀소 대성산종합병원을 찾으셨으셨다.

왕재산에 출단 예술인들은 29일 최현시에서 공연무대를 펼치고 있다.

임상이가 좋아하는 음악과 놀이를 마련하기 위해 시인의 글이나 그림과 함께 박금선동무를 찾았던 그는 나날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으며 그 나날에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다.

왕재산에 출단 예술인들은 29일 최현시에서 공연무대를 펼치고 있다.

임상이가 좋아하는 음악과 놀이를 마련하기 위해 시인의 글이나 그림과 함께 박금선동무를 찾았던 그는 나날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으며 그 나날에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다.

임상이가 좋아하는 음악과 놀이를 마련하기 위해 시인의 글이나 그림과 함께 박금선동무를 찾았던 그는 나날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으며 그 나날에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다.

임상이가 좋아하는 음악과 놀이를 마련하기 위해 시인의 글이나 그림과 함께 박금선동무를 찾았던 그는 나날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으며 그 나날에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다.

임상이가 좋아하는 음악과 놀이를 마련하기 위해 시인의 글이나 그림과 함께 박금선동무를 찾았던 그는 나날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으며 그 나날에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다.

임상이가 좋아하는 음악과 놀이를 마련하기 위해 시인의 글이나 그림과 함께 박금선동무를 찾았던 그는 나날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으며 그 나날에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다.

임상이가 좋아하는 음악과 놀이를 마련하기 위해 시인의 글이나 그림과 함께 박금선동무를 찾았던 그는 나날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으며 그 나날에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다.

임상이가 좋아하는 음악과 놀이를 마련하기 위해 시인의 글이나 그림과 함께 박금선동무를 찾았던 그는 나날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으며 그 나날에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다.

임상이가 좋아하는 음악과 놀이를 마련하기 위해 시인의 글이나 그림과 함께 박금선동무를 찾았던 그는 나날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으며 그 나날에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다.

임상이가 좋아하는 음악과 놀이를 마련하기 위해 시인의 글이나 그림과 함께 박금선동무를 찾았던 그는 나날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으며 그 나날에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다.

임상이가 좋아하는 음악과 놀이를 마련하기 위해 시인의 글이나 그림과 함께 박금선동무를 찾았던 그는 나날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으며 그 나날에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다.

임상이가 좋아하는 음악과 놀이를 마련하기 위해 시인의 글이나 그림과 함께 박금선동무를 찾았던 그는 나날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으며 그 나날에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다.

임상이가 좋아하는 음악과 놀이를 마련하기 위해 시인의 글이나 그림과 함께 박금선동무를 찾았던 그는 나날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으며 그 나날에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다.

임상이가 좋아하는 음악과 놀이를 마련하기 위해 시인의 글이나 그림과 함께 박금선동무를 찾았던 그는 나날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으며 그 나날에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다.

임상이가 좋아하는 음악과 놀이를 마련하기 위해 시인의 글이나 그림과 함께 박금선동무를 찾았던 그는 나날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으며 그 나날에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다.

임상이가 좋아하는 음악과 놀이를 마련하기 위해 시인의 글이나 그림과 함께 박금선동무를 찾았던 그는 나날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으며 그 나날에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다.

임상이가 좋아하는 음악과 놀이를 마련하기 위해 시인의 글이나 그림과 함께 박금선동무를 찾았던 그는 나날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으며 그 나날에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다.

임상이가 좋아하는 음악과 놀이를 마련하기 위해 시인의 글이나 그림과 함께 박금선동무를 찾았던 그는 나날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으며 그 나날에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다.

임상이가 좋아하는 음악과 놀이를 마련하기 위해 시인의 글이나 그림과 함께 박금선동무를 찾았던 그는 나날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으며 그 나날에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다.

임상이가 좋아하는 음악과 놀이를 마련하기 위해 시인의 글이나 그림과 함께 박금선동무를 찾았던 그는 나날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으며 그 나날에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다.

임상이가 좋아하는 음악과 놀이를 마련하기 위해 시인의 글이나 그림과 함께 박금선동무를 찾았던 그는 나날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으며 그 나날에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다.

임상이가 좋아하는 음악과 놀이를 마련하기 위해 시인의 글이나 그림과 함께 박금선동무를 찾았던 그는 나날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으며 그 나날에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다.

임상이가 좋아하는 음악과 놀이를 마련하기 위해 시인의 글이나 그림과 함께 박금선동무를 찾았던 그는 나날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으며 그 나날에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다.

임상이가 좋아하는 음악과 놀이를 마련하기 위해 시인의 글이나 그림과 함께 박금선동무를 찾았던 그는 나날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으며 그 나날에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다.

임상이가 좋아하는 음악과 놀이를 마련하기 위해 시인의 글이나 그림과 함께 박금선동무를 찾았던 그는 나날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으며 그 나날에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다.

임상이가 좋아하는 음악과 놀이를 마련하기 위해 시인의 글이나 그림과 함께 박금선동무를 찾았던 그는 나날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으며 그 나날에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다.

임상이가 좋아하는 음악과 놀이를 마련하기 위해 시인의 글이나 그림과 함께 박금선동무를 찾았던 그는 나날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으며 그 나날에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다.

임상이가 좋아하는 음악과 놀이를 마련하기 위해 시인의 글이나 그림과 함께 박금선동무를 찾았던 그는 나날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으며 그 나날에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다.

임상이가 좋아하는 음악과 놀이를 마련하기 위해 시인의 글이나 그림과 함께 박금선동무를 찾았던 그는 나날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으며 그 나날에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다.

임상이가 좋아하는 음악과 놀이를 마련하기 위해 시인의 글이나 그림과 함께 박금선동무를 찾았던 그는 나날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으며 그 나날에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다.

임상이가 좋아하는 음악과 놀이를 마련하기 위해 시인의 글이나 그림과 함께 박금선동무를 찾았던 그는 나날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으며 그 나날에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다.

임상이가 좋아하는 음악과 놀이를 마련하기 위해 시인의 글이나 그림과 함께 박금선동무를 찾았던 그는 나날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으며 그 나날에 수십명의 내영원들이 명랑한 꿈을 품고 있는 데 대해 한 사람도 미련이 없었다.



